

코로나19 잠잠해지면 “꼭”



고창읍성

제대로 알고 마음껏 즐기는 미식기행 오감만족

코로나19로 여행길을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지만,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 초여름은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꽃은 지지 않았으며, 신록의 푸름과 따스해진 날씨의 사람들의 오감을 절로 자극한다. 이 즈음 전북 고창을 찾으면 미식기행을 겸한 오감만족 여행을 만끽하기에 그만이다.

고창은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 군락과 지정을 앞둔 습지, 고창읍성, 미당 문학관, 삼양염전 등 다양한 볼거리에 풍천장어까지 맛볼 수 있어 발품을 아깝지 않은 여정을 꾸릴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 와인글라스 향구인 구시포향은 ‘캠핑성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면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고창으로 떠나보자.

◇우리나라 최초 와인글라스향구 구시포향에서 즐기는 ‘캠핑’

고운모래와 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구시포향은 명사십리로 이어지는 해안선과 송림이 일품이다. 특히 최근에는 30~40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오토캠핑이 대유행이다. 가족단위 캠핑장소로 제격이다. 백사장 앞에는 구시포향의 또 다른 명소인 가막섬이 여행객을 반긴다. 발발으로는 고운 금모래가 펼쳐져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 조건까지 갖추고 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로 와인글라스(wine-glass) 형태의 국가어항으로 국내에서 가장 특색 있는 향구로 꾸며질 전망이다.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가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경도 자아낸다.

바로 인근의 동호해수욕장은 완만한 경사의 모래사

고창

국내 최초 와인글라스 향 ‘구시포’ 고인돌 군락·고창읍성·운곡습지 등 다양한 볼거리... ‘캠핑성지’로 각광

장어·복분자·수박, 대표먹거리 세계 최고 게르마늄 함유 ‘석정온천’ 온천일대 식생 복원 생태교육장으로

장과 갯벌이 어우러져 얇은 수심으로 어린이도 안심하고 물놀이 즐길 수 있다. 백사장 뒤쪽으로 가지런히 서있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한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 피서객이 많다. 해수욕을 끝내면 하전어촌체험마을의 갯벌체험도 주요코스로 꼽힌다. 물이 빠지면 1km 이상 드러나는 모래와 썰이 섞인 갯벌이어서 발이 빠지지 않아 남녀노소 물론 가족이 갯벌체험의 즐거움을 맞보는 데 제격이다.

◇한반도 첫 수도를 느낄 수 있는 문화유산

고창은 문화유적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지석묘 군락지는 선사시대 큰 군집을 이뤘던 고창지역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고창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조밀한 고인돌 분포지역으로 무려 2000여기가 산재해있다. 기원전 4~5세기경 조성된 동양 최대의 고인돌 집단 군락지인 죽림리, 상갑리, 매산 마을을 중심으로 한다. 고인돌 주변에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람사르 내륙습지도 소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멸종 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보호종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 중이다.

또 조선 초기에 왜적을 막기 위해 쌓은 고창읍성은 옛 위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판소리 대가 동리신재호 선생 생가와 미당 서정주 문학관 등 곳곳에 문화유적이 산재해 자연과 함께 문화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백제 위덕왕 24년(577)에 검단선사에 의해 창건된 선운사는 유서 깊은 고창로 사계절 내내 고유의 정취를 가득 내뿜는다.

선운사에서 좀 더 들어가면 조용한 암자 도솔암을 만날 수 있다. 고요하면서도 암자를 감싼 신록이 묘하게 어우러진다. 선운사에서 자연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문화생태탐방로인 질마재 길을 걸을 수 있어 더욱 의미깊다.

◇‘수박, 복분자주, 풍천장어’ 먹거리 많기도 많네 국내 ‘미식의 고창’을 꼽을 때 고창은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장어’와 ‘복분자’의 명산지, 이 둘의

조합은 ‘보양식’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고창스테미아수박은 시원하고 달콤한 맛으로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농산물이다.

풍천장어는 바닷물과 강물이 어우러지는 지점에서 바다에 물이 들어올 때 육지로 바람을 몰고 들어온다 해서 풍천장어라 이름 붙었다. 고창에서는 지역 특유의 양념과 조리법을 가진 각 음식점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장어구이를 판매하고 있다.

고창은 장어 말고도 습은 별미가 있다. 그것은 바지락이다. 고창은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특히 드넓은 갯벌에서 잡은 바지락은 국내 바지락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전국최대의 바지락 산지다. 고창군 내 식당 곳곳은 바지락을 넣어 만든 칼국수, 부침개, 비빔밥 등을 선보이고 있다.

◇여행 마지막 ‘힐링’을 장식할 석정온천 고창은 ‘여독’을 풀어줄 수 있는 온천도 보유하고 있어 여행 마지막 행복을 만끽할 수 있게 도와준다.

고창 석정온천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게르마늄 함유량을 자랑한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은 게르마늄물로 불치병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석정온천은 이 루르드 샘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량이 많은 온천임을 인정 받았다.

고창군 온천일대 식생을 복원(가시연꽃, 소나무, 버드나무, 자생종 초화류 식재)하고 가시연꽃 학습장을 만들어 생태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북일보 = 김윤정 기자



구시포해수욕장 송림 오토캠핑장.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일원에 있는 운곡습지. 이곳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주일보 江原日報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每日新聞 부산일보 釜山日報 제주新보 新 韓 半 島 新 韓 半 島 新 韓 半 島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t'way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